



기업 신뢰력에 버금가는 맑은물 만든다

■ 편집부

쾌청한 하늘빛이 유난히
고운 오후, 점차 황
금빛을 드러내고 있는 벼들과
코스모스가 어울어진 들녘을 가
로질러 이달의 현장은 의정부에
소재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
장·권오걸) 제1공장을 찾았다.

2만 5천평의 대지위에 자리잡
은 본사는 생활의 여유로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의 수
요에 따라 양질의 유제품을 생
산하고 있다. 기자를 맞아준 공
무과 崔光植계장은 다정한 이웃
집 아저씨처럼 넉넉해 보인다.

15년째 본사에서 정·폐수관
리를 담당하고 있는 崔계장은
올해 환경관리장 은장을 수상한
전형적인 '모범환경관리인'으
로 소문이 나있기도 하다.

대기2종, 수질3종 규모인 본

사의 폐수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림 1〉의 폐수처리공정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실에서
사용된 모든 용수는 집수조로
유입, 3조의 라군조에서 약 20
일정도 체류되면서 미생물에 의
해 분해된다.

또 잉여슬러지는 99%로 농축
시켜 탈수처리하는데, 이때 슬
러지지케익의 함수율은 82%정
도로 탈수해 위탁처리하고 있다.

폐수의 성상 및 처리수의 처
리효율은 〈표 1〉과 같다. 표에
나타나있듯 유가공폐수의 특징
은 BOD가 다소 높은 편이나
98%의 효율로 처리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崔계장은 화학
적처리공정에선 처리효율이
75%밖에 안돼 원폐수의 BOD

가 500PPM이상되면 기준치를
초과시키기 때문에 지난 83년도
에 기존의 화학적처리공정에서
생물학적 처리공정으로 전환시
켰다고 말한다. 이후 처리수의
BOD, COD가 50PPM전후로
처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치즈생산과정에서 발
생하는 치즈웨이 가 폐수장으로
유입, BOD과부하로 처리에 어
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농축시

〈표 1〉 폐수의 성상 및 처리수 효율

| 항 목 | 원폐수 | 처리수 |
|-----|------|-----|
| PH | 8.7 | 7.5 |
| COD | 423 | 36 |
| BOD | 1860 | 42 |
| SS | 536 | 37 |
| 유지 | 83 |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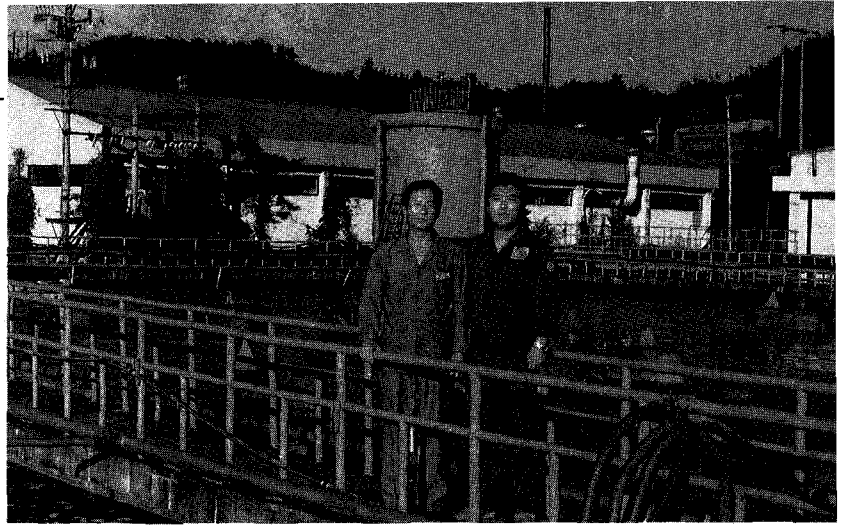
켜 제품의 부원료로 사용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폐수처리장의 BOD부하를 감소시켜 동력비·약품비 등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현장을 안내하면서 무엇보다 미생물처리에 있어서는 라군조의 온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최계장은** 동절기 라군조의 온도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8년에 50HP짜리 브로워 2대를 구입했다.

“브로워의 이용으로 동절기에도 별문제 없지요. 다만 생산 현장에서 오염물질이 과다 유출되는 경우 미생물의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탁월한 창의력과 남다른 성실함 그리고 꾸준한 노력가로 정평이 나있는 **최계장은** 그동안 수차례 조합장으로부터 공적상을 받았다. 고려대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한 그는 '75년 본사에 입사, '77년에 공해관리기사 1급을 취득했다.

지난해엔 고려대 식량개발대학원에서 “유가공 공장의 오염



▲폐수처리장에서의 최광식·김장수관리인. 좌측의 최관리인은 '90환경관리장 은장의 주인공이기도.

물질과 처리효율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만학도. 더욱이 학업성적이 뛰어나 총장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탁한 물이 맑게 정화되고 처리수에서 금붕어와 잉어가 살고 있는 것을 볼때면 생태계의 신비함과 환경관리인으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1년 365일 완벽하게 처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처리수를 모아 만든 연못속에 물려다니는 잉어를 들여다보며 그는 이렇듯 아주 함축적인 언어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나타내는듯 싶었다.

폐수처리장을 벗어나 **최계장**

의 안내로 생산라인을 견학한후,

다시 폐수처리장쪽으로 향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전국의 모든 환경관리인들의 공통된 바램이라면 환경분야가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2~3종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게끔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겠냐고 대답한다. 본사의 경우도 조합의 체제여건상 직제개편이 어려워 환경과가 없는 상황.

승진의 기회가 없는 형편이라 불가피하게 그 역시도 만년계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푸념아닌 푸념을 털어 놓는다.

끝으로 그는 ‘희망사항’ 한가지를 덧붙였다.

“지도 점검에 있어서도 단 한번의 샘플채취로 전체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2~3회 정도 샘플링하여 평균치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면 환경관리인이나 기업체측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림 1〉 폐수처리 공정도

